



# 음식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안갯속'

### 이달 사업적정성 검토결과 나와도 2022년 준공 가능 제주시권 시설 사용연장 불가피... 주민반발 가능성도

제주 음식물류폐기물바이오가스화 시설사업(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시설 조성사업)의 준공시기가 기존 계획보다 늦어질 것으로 알려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존 제주시권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기간 연장이 불가피해지면서 해당 지역주민의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서귀포시 섕달 동 산 6번지 인근에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은 당초 2009년부터 논의됐지만 예정지역 주민 반발로 입지 결정이 늦어지다가 2017년 5월 섕달 마을회와 주민협약을 체결하면서 속도가 붙었다.

사업기간은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년이며 사업면적은 3만4737㎡다. 시설처리 용량은 하루 340t로 계

획했으며, 예산은 816억원(도비 50%)으로 추정했다.

기존 처리시설의 효율이 떨어지는 데다, 인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처리량이 증가하면서 시설 조성의 필요성이 요구됐다. 특히 최신식 광역시설의 조성으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자원순환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당시 제주도는 국비 확충을 기재부에 요청했고, 2018년 2월부터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주시권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연장이 필요하다라는 점이다.

제주도는 사업 준공 기간이 기존 2021년 12월에서 2022년 하반기로 1년 정도 연기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음식물자원화센터가

위치한 봉개마을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해진다.

제주시권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 기한은 2021년 10월로 알려졌다. 신규시설 확충까지 1년이라는 공백이 발생하는 셈이다.

그러나 현재 봉개마을은 오랜 기간 동안 쓰레기로 인한 악취 등에 시달리면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동북리 환경자연순환센터 준공 지연으로 매립장과 소각장 등의 사용기한을 연장한 바 있어 이번 시설 사용기한 연장에도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주민 동의 등이 선결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빠르면 이달 말 기재부의 적정성 검토가 결론이 나는데, 앞으로 터기방식 등을 도입해 내년부터 본격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12월 초에 착수하더라도 빨라야 2022년 하반기에 준공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권 시설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소각장 포화... 바다 건너는 폐목재 제주내 쓰레기 소각장 포화로 인해 소각 처리되지 못한 폐목재가 24일 제주항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반출되고 있다. 2018년 12월말 현재 제주도 북부광역소각장에 쌓여 있는 폐목재는 2만4386t이다. 제주시는 올해 폐목재 1만3000t의 제주도 외 처리비용으로 20억원을 편성했다.

# “4·3 이념잣대 아닌 인권 보편 가치 특별법 개정, 진영논리 접근 안돼”

### 어제 4·3 토론회 한목소리

“보수와 진보 등 진영논리를 벗어나지 못하면 4·3특별법 개정은 어려울 수 있다. 대통령의 사과와 유족들을 보듬어 안겠다는 취지로 이해해야 한다.”

제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은 24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과 4·3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병희 칼럼니스트의 사회로 오 의원과 송승문 4·3유족회장, 임재성 변호사, 백가운 제주다크투어 대표가 출연했다. 임재성 변호사는 제주4·3 수형인 법률대리인이다. 토론회는 JIBS가 주관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1년 반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의 필요성과 이를 통과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구체적으로 ▷4·3, 왜 기억해야 하나 ▷4·3특별법 개정

안 의미와 필요성 ▷4·3의 세계화 등이 주로 논의됐다.

오 의원은 “진영 논리로 접근하는 세력을 경계해야 한다”며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운동을 진영논리로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빨리 열리면 계속 논쟁이 있어도 방법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승문 회장은 “4·3은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로 봐야 한다”며 “개정안이 올해 통과되지 않으면 2020년 추념식 행사장에 정치인들의 입장을 막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소진기자

# 폐지에 남은 음식 먹이면 오늘부터 과태료 1000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폐지에 남은 음식물 급여를 금지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했다. 앞으로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승인을 받거나 설치 신고를 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생산·공급하는 음식물 사료는 제외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9월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유행 방지를 위해 남은 음식물을 먹이는 폐지에 대한 수매와 도태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현재까지 도태·출하된 폐지

는 농가 9곳의 116마리다.

또 하절기를 맞아 해외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도내 양돈농가 287곳을 대상으로 127명의 전담관을 지정, 외국인근로자 고용상황과 방역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에 따르면 ASF는 지난 22일 기준 총 48개국에서 발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여행객 휴대 축산물을 통해 ASF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된 사례가 제주 2건 포함 총 17건이 발생했다.

이소진기자

# 설립 3년만 35억 유치... 청년 창업기업 일냈다

### 도 지원에 힘키운 토종기업 캐치잇플레이 성과 눈길 학습·게임기술 접목 서비스

설립된 지 3년 밖에 되지 않은 제주 지역 청년 창업기업이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는 KDB넥스트라운드(NextRound)를 통해 제주 청년 창업·벤처기업인 (주)캐치잇플레이(대표 최원규)가 KDB산업은행·한화투자증권·SV인베스트먼트로부터 35억원을 투자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제주 청년 창업·벤처기업인 (주)캐치잇플레이는 넥슨과 엔씨소프트, 대교, 카이스트 등에서 경력을 쌓은 국내외 학습 및 게임전문가들이 모여 2016년 4월 설립한 에듀테크기업이다.

주력서비스로는 학습에 게임기술을 접목한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기반 언어학습 애플리케이션인 ‘캐치잇 잉글리시’, ‘캐치잇 코리안’ 등이다.

이번 투자유치는 지난 3월15일 제주에서 창업한 스타트업과 투자자들이 연결하는 KDB넥스트라운드 기업설명회(IR)에서 (주)캐치잇플레이의 성장가능성을 눈여겨 본 투자자들이 대규모 투자에 나선 것이다.

KDB넥스트라운드는 대한민국의 대표 벤처투자 플랫폼으로써 성장주역인 스타트업·벤처기업에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고, 투자자에게 우량

투자처 발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6년 8월 출범했다.

무엇보다 (주)캐치잇플레이는 도와 제주테크노파크의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한 토종 기업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제주테크노파크는 2016년부터 사업화신속지원사업, 기업투자 및 성장지원, 지역특화산업 수출새싹기업지원사업, 기업지원단 전담PM제, 창업기업 성장맞춤형 지원사업, 벤처기업육성사업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해 왔다.

내년부터는 (주)캐치잇플레이의 코스타 기술특례상장 지원예정, 코스타 상장될 경우 순수 제주스타트업·벤처기업으로는 또 하나의 신기원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 상·하수도요금 10월부터 오른다

### 상수도 5~7%·하수도 35% ↑

제주지역 상·하수도 요금이 10월 납기 고지분부터 인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수도급수 조례개정안과 하수도 사용조례개정안이 오는 31일자로 공포(예정)되면 10월 납기 고지분부터 상수도요금은 가정용 평균 5%, 일반용·대중탕용·농수축산용 및 산업용 평균 7%, 하수도요금은 평균 35%

인상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은 가정에서 한 달 15t를 사용할 경우 전년보다 1800원 정도 추가 부과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상·하수도 요금은 생산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요금 현실화를 개선 없이 상·하수도 공기업 경영 정상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상수도 생산원가는 t당 1028.8원

인데 반해 공급요금은 825.8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80.3% 정도다.

특히 하수도 처리원가는 t당 2419.3원인 반면 공급요금은 474.3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19.6%다. 이는 전국 평균 상수도 81.5%, 하수도 49.9%보다 낮은 실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가계 부담을 고려해 요금 인상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상·하수도 시설의 안정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도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매일타는 장기렌터카  
**월세 타세요, 전세 타세요?**  
\*나는 전세 car 타다!

2018. 12. 17. 제23회 소비자의날 대한민국 소비자만족도 평가 대상 수상

4년동안 타던 차를 반납하면  
전세보증금처럼 새차 임대 년 금액을 100% 돌려 받는 새로운 렌터카 서비스  
당신의 자산과 가치를 지켜주는 카테크의 시작 전세렌터카로 같이타세요!  
차고지증명제가 필요없습니다

똑같은 자동차 타는 방식으로  
자산을 지키세요!  
4년동안 사용금액 비교  
원카전세렌터카 9,072,000원 VS 신차할부구입 32,867,144원  
월 사용금액 비교  
원카전세렌터카 189,000원 VS 신차할부구입 684,750원

이젠 자동차는 소유가 아니라  
편리하고 경제적인 사용의 개념으로 보셔야 할때,  
내가 원하는 국내 수입차  
전차종 가능.

①세금 부담  
②정비 부담  
③보험 부담  
④주행거리 제한

⑤보험사  
⑥정비  
⑦안전성  
⑧보험  
⑨장비업체  
⑩자금보증

국토교통부 인증 렌터카 WONCAR CTS매니저 박종욱  
010-9104-4742

# 방수

- 폴리우레아방수 -

- ◆ 지붕, 옥상 방수 및 도장공사
- ◆ 축사, 냉동창고, 양식장, 수영장 방수
- ◆ 저수조, 하수처리장 내·외벽 방수
- ◆ 물탱크, 원유저장탱크, 주유소 바닥 코팅
- ◆ 수도관, 가스관 등 각종 강관 코팅
- ◆ 철재 부식 코팅, 아파트 주차장 바닥
- ◆ 산업용시설물, 발전소, 학교, 관공서 옥상
- ◆ 구조물의 모든 부위 방수, 콘크리트 부식 방지
- ◆ SMC, FRP 물탱크 제작, 수리

A/S기간 : 3년 보장

주식회사 내쇼날건업  
내 쇼 날 FRP 페인트 총판  
- 방수, 도장 전문건설업, 여성기업 -

TEL : 064-727-9800 H.P : 010-3699-4850  
FAX : 064-753-8850 010-3211-0218  
national90@naver.com

친환경 전통건축  
[한옥에서의 건강한 삶, 전통건축 선자연이 실현합니다.]

시공

- 전통건축(살림집, 사찰)
- 전통주택 시공 및 리모델링
- 전통 구들 시공
- 문화재청 등록 [문화재수리기술자] 직접 시공
- 전통건축 대목이 직접 시공참여 기술지도
- 나무, 흙, 돌 등 천연재료를 사용한 친환경 건축
- 제주 전통건축 양식 및 기후 반영한 설계 시공
- 품질 우선 시공, 합리적인 건축비

상당 : 010-5308-5796, 064-764-0488

전통한옥문화재사랑 선자연

그랜드보청기

여름시즌 보청기 특별 할인행사!!!

방문고객 배터리 25,000원 → 15,000원  
다양한 행사에 샵충돌 훈저 전화 주셔서!

최대 60% 파격 할인

- 보청기 보상판매 서비스
- 무료 방문 상담 및 지원 서비스
- 고급 모델 1+1(원플러스 원 행사)
- 착용 보청기 A/S 및 무료청력검사
- 70세 이상 어르신 보청기 지원금 안내
- 청각장애인 보조금 상한선 131만원 안내

NAVER [그랜드보청기] 검색해 주세요  
네이버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시외버스터미널 동쪽 70m 행복빵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